

## 『滬游雜記』 試探

— 1876년 上海 여행안내서의 도시 기억과 장소성을 중심으로

文丁畛\*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滬, 도시의 기억
  - 1) 역사 세우기
  - 2) 일상 구축하기
3. 游, 공간과 장소
  - 1) 사물과 정보의 순환
  - 2) 자본과 욕망의 유통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滬游雜記』는 1876년 출판된 최초의 상하이 여행안내서이다.<sup>1)</sup> 杭州 사람 葛元煦가 清末 상하이에서 15년간 머물며 보고 들은 것을 총 네 권으로 구성했다. 저자의 친구이자 증보판의 편자이기도 한 袁祖志의 서문(袁序), 저자 葛元煦의 서문(自序), 일러두기에 해당하는 弁言이 제1권 본문 앞에 수록되어 있다. 제1권과 2권에는 상하이를 소개하는 157가지 세부 항목들을 “필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제3권에는 상하이의 다양한 풍속과 문물을 제재로 한 “시부가곡”이 수록되어 있고, 제4권은 각종 여행 정보들이다. 각 권의 크기는 대략 가로 12cm, 세로 19cm, 두

\* 성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滬游雜記』의 편찬 과정, 저자 葛元煦와 袁祖志에 대한 이력 및 관계, 사료로서의 가치 등은 夏曉紅의 「返回歷史現場的通道 - 上海旅游指南溯源」(『讀書』 2003年 第3期, 北京: 三聯書店, 2003.3. 76-81쪽)을 참고한다.

께 0.5cm로 휴대가 가능했다. 『호유잡기』는 明治 戊寅(1878)년 藤堂良駿의 訓點이 더해진 총 3권의 『上海繁昌記』로 일본 東京에서도 출간된다.<sup>2)</sup>



그림1 嘯園藏板『滬游雜記』

그림2 제목

그림3 「自序」

1909년 上海商務印書館에서 발행한 『上海指南(GUIDE TO SHANGHAI)』 등의 도시 소개 책자는 당시 상하이, 상하이인의 정주의식과 지역 정체성을 드러 내는 주요 사료이다.<sup>3)</sup> 전문 여행 가이드북은 아니지만, 1884년부터 1898년까지 지속된 어니스트 메이저(Ernest Major)의 『點石齋畫報』나 吳友如의 1890년 『飛影閣畫報』, 1893년 『申江勝景圖』 등의 그림 신문이 보여주는 근대 상하이의 사회상은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반면 1860년대와 1870년대 중반까지는 연구사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온 시기이다.<sup>4)</sup>

『滬游雜記』가 출판된 1876년 이미 상하이를 찾는 이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고, 18개의 성에서 온 중국인과 24개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까지 방문객의 구성 또한 다양했다. 자신들의 지역 및 국가의 풍습과 가치관을 지닌 채 낯선 타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느끼는 간격(不通)과 차이(各異)

2) 葛元煦의 생몰 연대는 미상이다. 理齋, 學古齋, 嘯園 등의 별호를 지니고 『滬游雜記』와 함께 『嘯園總書』를 남겼다. 본고는 총 4冊으로 구성된 Columbia University 소장 『滬游雜記』(武林葛元煦理齋, 嘯園藏板)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의 「自序」末尾에 “光緒二年冬至日仁和葛元煦識”이 새겨져 있다. 본고의 원문은 鄭祖安 標點, 『滬游雜記』((清)葛元煦 撰, 上海書店出版社, 2006)를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3) 도시사학회 기획, 이영석·민유기 외 지음, 『도시는 역사다』, 파주: 서해문집, 2011, 138-139쪽.

4) Wasserstrom, Jeffrey N. 『Global Shanghai, 1850-2010: A history in fragment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9.

로 인해 종종 답답함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며,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손에 넣고 펼치기만 하면 되는” 『호유잡기』를 지닌 여행객이라면 가고자 하는 곳에 헤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다.<sup>5)</sup> 본 연구는 내부인이자 동시에 외부인이기도 했던 저자의 시선을 따라 조계가 드러내는 근대 도시의 면면을 살펴 보려 한다. “동서고금”이 얽혀 만들어내는 도시 서사는 상하이 사람들에게 구축되고 있던 정체성과 일상의 감각들을 엿보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상하이 또한 “과거 역사의 산물이자 미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현재의 다양한 역사적 실천이 이뤄지는 장소”였음이 환기되기를 바란다.<sup>6)</sup>

## 2. 滬, 도시의 기억

### 1) 역사 세우기

“滬”는 상하이의 약칭이다.<sup>7)</sup>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상하이는 개항 전부터 “吳淞 지역으로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사람과 물자가 모이고 있었다.” 清代 광둥과 푸젠 등에서 온 “객상”들을 중심으로 상하이 경제의 번영을 마련하고 있던 조계는 더 이상 도착 상하이 사람들만의 공간도 중국인들만의 공간도 외국인들만의 공간도 아니었다. 앞서 번영을 누렸던 홍콩처럼, 상하이는 방문하는 이들의 눈을 아찔하게 만들며 또 다른 근대 도시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홍콩의 쇠퇴와 함께 진행된 “상하이의 번성”은 홍콩 이전 “천하에 변화한 곳들이라 일컬어지던”

5) “因思此邦自互市以來，繁華景象日盛一日，停車者踵相接，入市者日幾眩，駉駉乎駕粵東，漢口諸名鎮而上之。來游之人，中朝則十有八省，外洋則二十有四國，各懷入國問俗，入境問禁之心，而言語或有不通，嗜好或有各異，往往悶損，以目迷足喪爲憾。… 手一編而翻閱之，欲有所之者庶不至迷于所往；即偶然莫辨者，亦不必洵之途人。” 「自序」(『滬游雜記』，自序，一)，(清) 葛元煦 撰，鄭祖安 標點，『滬游雜記』上海：上海書店出版社，2006，7쪽.

6) 도시사학회 기획, 주경철·민유기 외 지음, 『도시는 기억이다』, 과주: 서해문집, 2017, 6쪽.

7) “滬”가 상하이의 별칭이 된 연원으로는 고대 吳松江과의 연관성, 글자 “滬”에 담긴 어업도구로서의 의미, 고대 군사 방어 요충지로서의 중요성 등이 거론된다. 費慧林, 『海派廟市』, 上海：文匯出版社，2010，11-13쪽.

朱山, 佛山, 漢口, 景德 등의 순차적 흥망성쇠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sup>8)</sup> 상하이의 번성을 가속화한 것은 시장의 개방이었다.<sup>9)</sup> 『호유잡기』는 특히 개항과 함께 사람들이 즐겨 찾기 시작한 “조계”를 주요 서술 대상으로 삼고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한다.<sup>10)</sup>

조계는 상하이 城 동북에 있으며 주위 10여리이며 강을 경계로 삼는다. 프랑스 조계는 小東門밖 陸家石橋 강의 북쪽에서 북문 밖 三茅閣橋 강 이남에 이른다. 영국은 三茅閣橋 강의 북쪽에서 시작해 二擺渡 老閘 강의 서남쪽까지이다. 미국은 二擺渡 강의 동북쪽에서 외곽 虹口 일대이다. 세 나라의 조계 가운데 영국의 거류지가 땅도 넓고 사람도 번다하니, 洋行과 물건 상점의 열 중 일곱 여덟은 그곳에 있어 그 기상이 특히 번성하다. 프랑스 조계는 성의 동북쪽 끄트머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 거리가 다소 좁게 느껴진다. 동쪽은 푸젠, 광둥 지역 사람들이 모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 조계지는 강을 따라 몇 리일 뿐인데, 모두 선박공장, 상점, 운선 선착장, 서양 상인들의 주택이며, 광둥, Ningbo 사람 가운데 이곳에서 날품팔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sup>11)</sup>

본문의 시작과 함께 배치되어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세 조계 지역의 지도는 『호유잡기』의 포문을 열 뿐만 아니라 조계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새로운 근대 도시 서사의 서막을 알린다. 동서남북 공간의 구획과 함께 탄생한 조계는 그 자체가 매체였다.<sup>12)</sup> 長江을 따라 중국 곳곳에까지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은 “사람들이

8) “嘗考上海邑志載, 本邑於前明分自華亭蓋濱海一小縣耳. 我朝因之, 自太倉之瀏河日淤淺後, 海舶改由吳淞出入, 於是漸臻繁盛. 迨道光季年, 五口通商, 中外互市, 遂成巨觀. …人物之止者, 中國則十有八省, … 外洋則廿有四國. 近則輪舶愈多, 外海, 長江四通八達, … 猗歟盛哉, 自生民以來未有若是之美備者也! … 向稱天下繁華有四大鎮: 曰朱山, 曰佛山, 曰漢口, 曰景德. 自香港興而四鎮遜焉, 自上海興而香港又遜焉.” 「袁序」, 위의 책, 6쪽.

9) “此邦自互市以來, 繁華景象日盛一日.” 「自序」(『滬游雜記』, 自序, 一), 위의 책, 7쪽.

10) “一, 上海自通商後北市繁華, 日盛一日, 與南市不同. 宦商往來咸喜寄迹於此, 故卷內所載, 惟租界獨備, 非敢略彼而詳此也.” 「弁言」(『滬游雜記弁言』, 二), 위의 책, 8쪽.

11) “租界在滬城東北, 周十里, 以河爲界. 法國自小東門外陸家石橋河北起, 至北門外三茅閣橋河南止. 英國自三茅閣橋河北起, 至二擺渡老閘河南止. 美國自二擺渡東北起, 至外虹口一帶止. 三國租界英居中, 地廣人繁, 洋行貨棧十居七八, 其氣象尤爲蕃盛: 法附城東北隅人烟湊密, 惟街道稍覺狹小, 迨東爲閘, 廣幫聚市外; 美只沿江數里, 皆船廠, 貨棧, 輪舟碼頭, 洋商住宅, 粵東甯波人在此計工度日者甚衆.” 「租界」(『滬游雜記』 卷一, 一), 위의 책, 2쪽.

12) 매체로서의 상하이 조계 및 지식정보의 기술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정진의 「중

모여 살기 시작한 이래 이처럼 잘 갖춘 곳이 없었던” 근대 도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조계의 중심 교통은 육로였다. 전통적인 물의 도시(水鄉) 상하이의 운송 네트워크와 달랐다. 조계의 동서남북으로 건설된 거리는 “馬路”로 통칭되었는데, 지속적인 개보수 과정을 거친 도로 및 하수 시설과 매일 두 차례 시행된 청소로 인해 점차 근대 도시 상하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도로망의 정비는 외부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조계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확대를 가져왔다.<sup>13)</sup> 『호유잡기』 속 조계의 도시 기반 시설 및 근대적 건축물의 소개는 공간 자체의 기능과 목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서술되고 있다. 근대 도시 상하이의 기반 시설들에 대한 소개에 이어 『호유잡기』는 바로 관리들과 상인들이 편하게 유람할 수 있도록 찾는 이들이 많은 성 남쪽의 명승고적을 선별하여 안내한다.<sup>14)</sup>

성황신은 고을 사람 秦裕伯으로 원나라 때 사람으로 전해진다. 명나라 초기 行省의 참의로 부름을 받았으나 가지 않는다. 사후 여러 차례에 걸쳐 영험한 기적들을 드러내 보이며 백성들을 보호했다. 성황묘 건물 앞 네 개의 돌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다에서 떠오른 것이라고 하니 대단히 기이하다.<sup>15)</sup>

문화 영웅의 개별 서사를 포함시킨 구체적 묘사는 공간에 역사성을 부여하며, 성황묘를 시대적 기념 공간으로 탄생시킨다. 찾는 이들이 많았던 성 남쪽의 또 다 전통적 의미를 지닌 장소들은 상대적으로 연대기적 서사를 구성한다.

『호유잡기』는 조계의 존재감과 공간적 수용 사이의 간격이 만들어내는 근대 도시 상하이의 감각 또한 상세히 기록한다. 廣方言館은 “규정대로 선발한 어린이들에게 서양 지식인들이 산학 및 서양 언어와 문자, 형상을 본떠 기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남문 밖 製造局 옆에 있는데 크고 멋진 누각”으로 지어

국 근대 상하이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19세기 말 『申報』, 『點石齋畫報』, 『時務報』를 중심으로」(『中國現代文學』 제56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1.3, 173-199쪽)을 참고한다.

13) “相傳大街由東至西者統稱馬路”。…經工部局陸續整理…水不存積。歷久不壞。且每日打掃兩次。尤爲潔淨。”「馬路」(『滬游雜記』卷一, 二), 위의 책, 3쪽.

14) “其城南勝迹, 間及一二, 以備游滬宦商便覽。”「弁言」(『滬游雜記弁言』, 一), 위의 책, 8쪽.

15) “相傳城隍神卽邑人秦裕伯, 元時人。明初徵爲行省參議, 不就。歿後屢著靈跡, 爲生民保障。殿前 列石阜(皂)隸四, 傳聞自海上浮來, 甚奇。”「上海城隍」(『滬游雜記』卷一, 五), 위의 책, 10쪽.

진 廣方言館의 “문 밖에는 많은 대나무가 둘러싸고 있어 길은 녹음이 담장 사이 좁은 길에 드리워져 사람들에게 그윽하면서도 기품 있는 정취를 제공했다.”<sup>16)</sup> 서양 업무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 廣方言館은 상하이 최초의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사회에서 과거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에, 향시 응시 기간이라도 되면 학생들은 廣方言館의 교육 과정을 따르는 대신 四書五經을 외었다.<sup>17)</sup> 1876년 당시 廣方言館이 유지하고 있던 전통적 건축 형태 역시 이전 시대와의 역사적 연결성을 고수하고 있었다.

## 2) 일상 구축하기

『호유잡기』는 상하이 조계 도시민의 생활상과 서양식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장소성에 주목한다.

- 一. 마차가 다리를 건널 때 질주를 금한다.
- 一. 인력거(東洋車), 손으로 미는 일륜차(小車)가 도로에서 마음대로 정차하는 것을 금한다.
- 一. 마차, 인력거가 밤에 등을 켜지 않는 것을 금한다.
- 一. 일륜차의 바퀴 울림을 금한다.
- 一. 길 위에 쓰레기를 버리고 쌓는 것을 금한다.
- 一. 길가에서 소변보는 것을 금한다.
- 一. 길가에서 불꽃과 폭죽놀이를 금한다.
- 一. 경찰서에 알리지 않고 문밖에 길을 내고 도랑을 만들거나 길가에 가옥을 짓고 부수는 것을 금한다.
- 一. 개인이 술을 팔거나 서양인과 마시는 것을 금한다.
- 一. 춘분 후, 상강 전에 사냥한 짐승의 판매를 금한다.
- 一. 약취가 나는 생선과 고기의 판매를 금한다.
- 一. 야식을 판매하는 자가 양행 문 입구에서 딱따기를 치거나 크게 소리치는 것을 금한다.

16) “館在南門外製造局旁，重樓傑閣，門外種竹萬餘竿，濃陰夾道，幽雅宜人。館內以文童合例者充選，西士教習算學及西國語言文字，制器尙象之法。三閱月一考核，如有才能出衆能辦洋務者，即授以職。”『廣方言館』(『滬游雜記』卷一，十七)，위의 책，41쪽.

17) 費慧林，『海派廟市』，上海：文匯出版社，2010，190쪽.

- 一. 어깨에 닭이나 오리를 거꾸로 매달고 다니는 것을 금한다.
- 一. 분쟁 시 찻집에 모여 시비를 가리는 행위를 금한다.
- 一. 가로수에 오르거나 가지를 꺾는 것을 금한다.
- 一. 9시 이후에 똥을 메고 다니는 것을 금한다.
- 一. 구걸 행위를 금한다.
- 一. 야간에 행인의 의심할 만한 행동거지 및 손에 불을 비추지 않은 채 물건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을 금한다.
- 一. 모여서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주정하거나 서로 때리며 싸우는 행위를 금한다.<sup>18)</sup>

중국이지만 중국이 아닌(國中之國), 예외 공간으로서의 조계에서는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졌다. 상하이라는 도시가 지닌 상업적 경향성 및 외부로의 개방성은 당시의 도덕적 기준에서 비추어볼 때 명백한 일탈이자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근간이었다.<sup>19)</sup> 속세 속 “또 다른 세상에 와 있는”<sup>20)</sup> 것과도 같은 전통 공간의 특수성은 근대적 일상으로 대체되어 갔다.

화원은 파리양행에서 만들었다. 중서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곳곳에 심어 규모를 갖추고 있다. 연주되는 서양의 음악을 중의 인사들이 감상하며, 다과가 제공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석양이 질 무렵 서양 사람들은 종종 두 세 사람 지인들과 함께 그 곳을 산책한다. 중국인들 가운데 이곳을 지나가거나 관심을 갖는 이는 거의 드물다.<sup>21)</sup>

- 18) “一, 禁馬車過橋馳驟. 一, 禁東洋車, 小車在馬路隨意停走. 一, 禁馬車, 東洋車夜不點燈. 一, 禁小車輪響. 一, 禁路上傾積垃圾. 一, 禁道旁小便. 一, 禁肩輿挑抬沿路叫喝. 一, 禁施放花爆. 一, 禁不報捕房, 在門外砌路, 開溝及拆造. 一, 禁私賣酒與西人飲. 一, 禁春分後, 霜降前賣野味. 一, 禁賣臭坏魚肉. 一, 禁賣夜食者在洋行門首擊槌高叫. 一, 禁肩挑倒挂鷄. 一, 禁吃講茶. 一, 禁沿途攀折樹枝. 一, 禁九點後挑糞担. 一, 禁乞丐. 一, 禁夜間行人形迹可疑及携挾包裹物件手無照燈. 一, 禁聚賭酌酒斗毆.” 「租界例禁」(『滬游雜記』卷一, 四~五), 위의 책, 9쪽.
- 19) Lu, Hanchao, 『Beyond the neon light: everyday Shanghai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36-37쪽 참고.
- 20) “凡中外奇花異卉栽植無遺, 眞塵俗中別開生面.” 徐氏未園(『滬游雜記』卷一, 七~八), 위의 책, 15쪽.
- 21) “園爲波利洋行所建, 遍植中外花木, 姹紫嫣紅, 規模略具, 並奏西樂招中外人游賞, 盤餐兼備, 所費無多. 當夕陽欲下, 西人往往 二三知己, 徘徊其間, 華人則終鮮過而問津者.” 「西家滙花園」(『滬游雜記』卷一, 八), 위의 책, 16쪽.

외국화원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낯설거나 기괴한 그 무엇도 아니었다. “서양”의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서서히 조계의 평범한 삶의 영역으로 포함되었다. 해안가를 따라 배치되기 시작한 기하학적 형태의 서양식 건물에서 중심성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대신 『호유잡기』 속 “커다란 자명종”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가족들과 산책을 나서는 “서양인들”이 보여주는 생활 리듬을 체화시켰다.<sup>22)</sup> 또한 “서양인들이 黃浦江에 전함을 설치하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12시가 되면 대포를 쏘아” 알려주는 시간은 조계에 머무는 사람들의 일상 감각을 일깨웠다.<sup>23)</sup>

영국 조계 공부국은 옆에 목재 골조를 세우고 꼭대기에 큰 종을 걸어두었는데 마치 철탑처럼 높이 솟아 올라있다. 5층으로 나누어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간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되는대로 종을 수십 번 친 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종의 소리의 횟수로 지역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미국 조계지는 한번 소리를 내고 한번 멈춘다. 영국 조계지는 큰 길 북쪽인데 두 번 소리를 내고 한 번 멈춘다. 큰 길 남쪽은 세 번 소리를 내고 한 번 멈춘다. 프랑스 조계지는 네 번 소리를 내고 한 번 멈춘다. 낮에는 기를 걸고 밤에는 등을 달아 방향을 가리킨다. 조계의 예배당 또한 종을 쳐서 호응하며 각자의 수용에서 소리를 듣고 구하러 오는데 상당히 신속하다.<sup>24)</sup>

상하이 방문객들은 조계의 외국 의원, 공부국만이 아닌 官에서 설치한 牛痘局에서 금기나 섭식이 아닌 세 차례에 걸친 종두법의 시행만으로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도 해당 우두국을 방문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sup>25)</sup> “곳곳에 세워진” 상하이의 善堂에서는 아

22) “園在英界虹口大橋沿江一帶。遍地栽花，隨處設座。每日申酉時，爲西人挈眷携童游賞之所。”  
「外國花園」(『滬游雜記』卷一，八)，위의 책，17쪽.

23) “西人設兵舶於黃歇浦，逢禮拜一，五准十二點鐘，放砲一聲，響傳數里，以便較對鐘表。”  
「牛正跑」(『滬游雜記』卷一，二十六)，위의 책，66쪽.

24) “英工部局旁設一木架，頂懸大鐘，高聳似塔架，分五層，以梯盤旋而上。遇火警先撞亂鐘數十下，稍停，再以鐘之聲數分地段。如美界，一聲一停；英界在大馬路北，二聲一停；大馬路南，三聲一停；法界四聲一停，晝則懸旂(旗)，夜則掛燈，以示方向。租界禮拜堂亦擊亂鐘相應，各處水龍聞聲赴救，頗稱迅速。”  
「火警鐘」(『滬游雜記』卷一，二十七)，위의 책，67쪽.

25) “種以三粒或四粒爲度，種三次決無後患。數日結痂，不必避風忌口，屢著成效。邑廟園內官設牛痘局，貧民無力種痘者至局施種。租界則外國醫院，工部局亦設局施濟。”  
「牛痘局」(『滬游雜記』

픈 이들을 위해서는 약을 베풀었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으며, 장애인들을 돌보거나 교육을 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계산을 하지 않는 공공복지 서비스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sup>26)</sup>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해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과 북으로 하루씩 번갈아가며 순찰하는 구명선<sup>27)</sup>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은 상하이 조계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시켰다.

서양인들의 소방 호스는 대단히 정교하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호스는 길이가 수십 척인데 호스의 끝을 물속에 집어넣고 몇 사람이 기기를 붙들어서 작동한다. 물을 흡수하여 뿜어내는 기체는 마치 소나기가 공중에 뿌려지듯 세차 순식간에 불의 신 축음이 노여움을 거두는 듯하다. 공부국에서 만든 것인데, 불을 끄기 위해 기기를 운반하여 작동시키는 것이라 인력의 소모가 적고 멀리까지 미칠 수 있다.<sup>28)</sup>

“기운을 불어 구름을 만들고, 땀을 휘저어 비를 만든” 신의 영역을 근대적 소방機器가 대신했다. “예측할 수 없는 물과 불의 재난”은 원금의 가치에 따라 배상되는 보험 제도로 배상이 가능했다. 『호유잡기』가 묘사하는 새로운 장소들은 상하이 조계의 지리적 심상만이 아닌 문화적 위상 또한 전환시키고 있었다.

卷一, 十八), 위의 책, 43쪽.

26) “上海善堂林立. 有同仁輔元, 果育, 普育, 清節等堂及安老院, 保息局, 牛痘局, 嬰總局. 或治病施藥, 或給棺掩埋, 或收養殘廢, 或設塾教讀. …設館以來活人無算.” 「善堂」(『滬游雜記』卷一, 十八~十九), 위의 책, 44쪽.

27) “黃浦江中海舶停處, 桅檣林立. …渡船舢板往來載客時, 有失足落水之慮. 南門外設有救生輪舟一艘, 一日駛南, 一日駛北, 往返巡察, 洵屬善舉.” 「救生輪舟」(『滬游雜記』卷一, 二十三), 위의 책, 58쪽.

28) “西人水龍製最精法(法製最精), 用皮管長數十丈, 使管尾浸入水中, 數人鼓動機器. 能吸水從口出, 勢如驟雨洒空, 滂沱四注, 頓使祝融爲之霽威. 工部局所製, 則以火運動機器, 不煩人力, 且能及遠.” 「洋水龍」(『滬游雜記』卷一, 二十七), 위의 책, 68쪽.

### 3. 游, 공간과 장소

#### 1) 사물과 정보의 순환

『호유잡기』의 “游”는 일차적으로 여행의 의미이다. 그런데 상하이 조계를 여행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호유잡기』 제4권에는 각종 여행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상하이에 있는 각국 영사관 거리, 인명, 서화가들의 특징과 가치, 黃浦江의 밀물과 썰물 시간, 중국과 서양의 납세 규정, 각 항구의 출항 시간·노선·여정·가격, 전보 비용, 각 회관, 직업 안내소, 개인 금융거래소, 서양물품 판매점들의 상호, 숙박업소의 주소, 각 회원의 배우 및 공연 극목 등을 수록한다. “곳곳에서 온 사람들의 “왕래”를 따라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사물과 정보가 『호유잡기』 전체를 관통한다.

“서양인들이 세운 박물관에서는 서양의 각 국에서 수집한 신기하고 기이한 물건들을 전시했다.” 『호유잡기』가 박물관을 주목한 이유는 해외의 “대단한 불거리”였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그 안에 들어선 사람들이 넓히고 배울 “견문”과 “격치” 때문이었다. 박물관의 “신기하고 기이한 사물들”은 교육적이었으며 또 문화적 관점에서 지시적이었다.<sup>29)</sup>

『호유잡기』를 통해 상하이의 여행객들은 더 넓은 세계로 연결할 링크를 안내받았다. 당시 상하이에서는 서양인 메이저에 의해 창간되었지만 기사 작성은 중국 지식인들이 담당하던 『申報』가 “대단히 유행”하고 있었다. 『申報』가 “字林洋行之『上海新報』, 이어서 광둥 사람들의 『匯報』, 『彙報』, 『益報』 등의 신문사를 모두 폐간”시킨 결정적 이유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발행된” 신문에 “경보의 소식 및 각종 공지들이 하나하나 모두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0)</sup> “각국 근사를

29) “西人設博物院彙集西國新異之物, 陳設院中, 上而機器, 下及珍禽奇獸. 入其中者, 可廣見聞, 可資格致, 誠海外巨觀也.” 「博物院」(『滬游雜記』卷一, 十六), 위의 책, 42쪽.

30) “『申報』, 美查洋行所售也, 館住爲西人美查, 秉筆則中華文士. 始于壬申三月, 除禮拜按日出報, 每紙十文. 京報新聞及各種告白一一備載, 各省碼頭風行甚廣. 先有字林洋行之『上海新報』, 繼有粵人之『匯報』, 『彙報』, 『益報』等館, 皆早閉歇.” 「申報館」(『滬游雜記』卷一, 二十), 위의 책, 46쪽.

적록하여 매주 일요일 1권씩 출간되는” 『萬國公報』,<sup>31)</sup> “상세하게 격치의 능력을 논하며 기기제조의 각종 방법을 나열하고 그림으로 해석을 더해” 매달 1권씩 출판한 『格致彙編』<sup>32)</sup>은 “인쇄”와 “판매”를 통해 상하이 지식과 정보 체계의 활발한 작용을 담아냈다. 빠르게 순환하는 지식과 정보 역시 소비의 대상이었다. 이는 上海招商局에서 제작되는 운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편리한 물류와 유통 시스템에 기인했다. 서양처럼 官이 아닌 상인이 주관하는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저한 효과를 보였다.<sup>33)</sup>

『호유잡기』는 당시 조계에서, 아니 더 나아가 “각 성의 부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의 빠른 순환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양인들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전선”, 그리고 “만 리까지 이어져 소식을 전하는 데 몇 분이면 도착하는” 전보는 전 세계의 “소식을 전달했다.” 사물이 포함한 지식은 개인을 넘어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관계된 복합적 신호를 포함한다. 비밀리에 정해진 암호와 신호를 외부 인들은 알 수가 없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금 열쇠”를 열기 위해 『호유잡기』는 과학과 기술에 의해 더욱 질서 있는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들을 상세히 소개한다.<sup>34)</sup>

각각의 물품들마다 다른 집산지도 형성되어갔다.<sup>35)</sup> 원산지에서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더 유명해지곤 하는 토산품들이 상하이에서 판로를 개척해 유통되었다.<sup>36)</sup> 상하이 인근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면화이다. 농촌의 부녀자들은 방적으로 생계를 삼았고, 매일 새벽시장에 화포를 내다팔러 오는 시골 사

31) “『萬國公報』出林華書院。摘錄京報及各國近事，逢禮拜六出書一卷。” 『萬國公報』(『滬游雜記』卷一，二十一)，위의 책，51쪽.

32) “『格致彙編』秉筆者爲英國傳蘭雅。編內洋論格致功夫及置造機器諸法，繪圖集解。月出一卷，周年價值半元，在格致書院印售。” 『格致彙編』(『滬游雜記』卷一，二十一)，위의 책，52쪽.

33) “合肥李伯相創立上海招商局，制備輪舟載貨，以便商民販運。…一如西國之制。系由衆商集資匯辦，不設官員，專用巨商董司其事，行之數年，頗著成效。” 『輪船招商局』(『滬游雜記』卷一，二十五)，위의 책，62쪽.

34) “綿長萬里，傳遞信息，數刻可達，謂之電報。…至遞報之法，彼此線尾各置針盤一具，列二十六字母。此擊彼應。…所報皆號碼，有書即可檢查。行棧家有秘密信，可將號數暗訂，兩地心照，謂之金匙開鎖，則局外人不知作何語矣。” 『電報』(『滬游雜記』卷二，三)，위의 책，81쪽.

35) “上海貨物皆有聚市之所” 『各貨聚市』(『滬游雜記』卷二，十四)，위의 책，106쪽.

36) “在本地不甚珍重，而遠處頗驗。俗稱藥物爲鄉草，愈遠愈佳，理或然歟?” 『寶珍膏』(『滬游雜記』卷二，十八~十九)，위의 책，116쪽.

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sup>37)</sup> 하지만 발로 밟기만 하면 저절로 돌아가며 촘촘히 천을 박음질해내며, 한 대로 여성 열 명의 일을 죽히 해내는 재봉틀이 조계에 수입되었다.<sup>38)</sup> 스스로 바람을 일으키는 서양의 부채, 선풍기는 “사람의 힘”을 덜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지속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사람의 뜻”까지 흡족하게 해주었다.<sup>39)</sup> 기계 산업으로 가능해진 대량 생산, 각종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한 집약적 유통 시스템은 소비를 촉진시킨다.

서양 사람들은 기계로 온갖 물건을 만들어 내니 하루에 열 명 혹은 수십 명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길을 열고, 석탄을 캐고, 말뚝을 박고, 배를 만들고, 서적을 인쇄하고, 물을 길고,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고, 차를 거르고, 차를 고르는 등의 일에서 기계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궁벽한 시골의 토양에서 갖추어 갖추고 있기는 참으로 어렵다. 대체로 서양의 국가들은 땅이 넓고 사람은 적기 때문에 제조에 있어 반드시 사물의 힘을 빌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의 땅은 넓고 사람은 조밀하여 백성들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자족하며 살 수 있기에 기계에 의지하지 않는 것 또한 필연적인 바이니 강요할 수는 없다.<sup>40)</sup>

중국과 달리 “땅에 비해 인구가 적은 서양”에서 “사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기계가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던 상하이 조계에 수용된 것은 시세의 변화를 경험한 결과였고,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성 이 그 안의 현상들을 법칙으로 만들고 기술로서 그것을 새로운 진리라 규정하는 사물화의 과정이다.

37) “松滬土山以棉花爲大宗，村莊婦女咸織小布爲養贍計。每日黎明，鄉人擔花挈布入市投行售賣者踵相接也。”「花布」(『滬游雜記』卷二，十八)，위의 책，115쪽.

38) “... 以足蹴木板，輪自轉旋。將布帛置其上，針能引線上下穿過。細針密縷，頃刻告成，可抵女紅十人。然祇可縫邊，不能別用。”「針線機器」(『滬游雜記』卷二，十九)，위의 책，118쪽.

39) “外洋所製自來風扇，... 不煩人力，... 最可人意。惜爲時不久，法條一轉不及一刻耳。”「自來風扇」(『滬游雜記』卷二，四十)，위의 책，156쪽.

40) “西人以機器制百物，一日可抵十人或數十人工作。如開河，挖煤，打樁，造輪舟，印書籍，取水，織布，針線，篩茶，調茶等事，無一非機器所爲。然其器雖巧，費用浩繁，窮鄉僻壤，殊難置備。蓋西國地曠人稀，故制造必藉物力。中華地廣人稠，民皆自食其力，不煩機器，歷勢所必然，不能強也。”「各式機器」(『滬游雜記』卷二，二十)，위의 책，119쪽.

## 2) 자본과 욕망의 유통

1843년 상하이가 개항된 이후 영국 조계지의 설립은 “十里洋場”이라는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어냈다. 공감각적 이미지들과 함께 형성되고 있던 조계의 장소성은 지역 상인들의 상업 전략과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주택은 조계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조계 내 서양 상인들의 자금 가운데 60~70%가 부동산에 투자되었다. 주택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당시 “상하이에서 살기는 쉽지 않았다.”<sup>41)</sup> 하지만 상하이는 “정말이지 사람의 혼을 뺏을” 만큼 화려하고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위로는 사대부에서 도벗장수까지”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sup>42)</sup> 『호유잡기』는 새로운 상품과 사람들로 채워진 상하이의 중서 문화에 대한 유연성과 탄력성을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별, 직업별, 계층별로 형성되고 있던 그룹을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킨다.<sup>43)</sup>

상하이는 상업지역이라 기인과 문인들이 종종 이곳에 모인다. 서화가들은 상하이에 와서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로 문지방이 닳을 정도라 부득불 원고료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상의 분위기를 쫓아 따르는 것을 만류할 수는 없겠으나 풍격과 우아함이라는 본래의 색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44)</sup>

서양인들에게 고용된 중국인 사환은 廣東과 廣西 출신, 그 다음으로 南京 출신이 많았다. 외모는 수려하고 정갈하며 일처리가 신중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다.<sup>45)</sup> 여종이든 남종이든 이들을 소개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해야 했던 직업소개

41) “上海租屋獲利最厚，租界內洋商出賃者十有六七。…昔人言“長安居，大不易”，今則上海居尤不易焉。”『房價』(『滬游雜記』卷一，二十三)，위의 책，59쪽.

42) “觀者上自士夫，下及負販，肩摩踵接，後至者幾無置足處…令人真個鎖魂矣。”『賽跑馬』(『滬游雜記』卷一，十四~十五)，위의 책，35쪽.

43) ‘會館’과 ‘公所’ 등을 중심으로 한 동종 업계 조직의 특성 및 변화 과정 등은 鼎徐新의 「舊上海工商會館，公所，同業公會的歷史考察」과 高洪興의 「近代上海的同鄉組織」(『上海研究論叢』第5輯，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1990，79-162쪽)을 참고한다.

44) “上海爲商賈之區，畸人墨客往往萃集於此。書畫家來游求教者每苦戶限欲折，不得不收潤筆。…風氣所趨，莫能相挽，要不失風雅本色云。”『書畫家』(『滬游雜記』卷二，一)，위의 책，75쪽.

45) “洋人用華人使謂之喚“細崽”…粵人多而寧人次之。大率皆青年韶秀者當之，衣服潔淨，趨事惟

소에는 無錫 근처 시골 蕩口鎮 사람들이 많았다.<sup>46)</sup> 황푸강변을 따라 대기해있던 작은 나룻배를 운행하는 이들은 대체로 福建이나 廣東 潮州에서 왔다.<sup>47)</sup>

순환하는 사물은 고정되지 않은 일시성의 것들을 붙잡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킨다. 東西古今이 교차하는 사이를 기록하던 『호유잡기』는 새로운 권력으로 작동하던 자본의 흐름을 상세히 드러낸다. 마치 경쟁하듯 베이징 스타일의 옷차림을 선호하던 상하이 사람들의 취향은 베이징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 네다섯 군데를 棋盤街, 寶善街에 개설하게 했다.<sup>48)</sup> 가장 유명하다는 Hope Brother's & Co(亨達利) 시계를 비롯해 서양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의 물건들은 그 명칭도 대단히 복잡했다. 하지만 北市와 南市에 퍼져 있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수입품 상점은 백 여 군데가 훨씬 넘었다.<sup>49)</sup> 오색나비와 영롱한 빛깔의 곤충들을 유리로 액자를 만들어 표본 해 걸어두거나<sup>50)</sup> 잘게 부서진 것들을 모아 만든 보석처럼 정교한 갖가지 전등갓과 그릇들로 손님들의 시선을 빼앗으며 문전성시를 이룬 유리제품 상점의 주인은 대부분 廣東 사람들이었다.<sup>51)</sup> 金陵 사람들이 주로 운영하는 新北門 안 대로변 상점에 전시된 골동품들은 다양한 품목들도 그렇고 가치 또한 대단했다.<sup>52)</sup>

한편 “통상이 집결하는 곳이자, 온갖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상하이의 각종

謹.”「細思」(『滬游雜記』卷二, 六), 위의 책, 87쪽.

46) “雇傭女僕必由女薦頭處喚來, 大約無錫鄉間蕩口鎮人最多, 男僕亦然.”「女薦頭」(『滬游雜記』卷二, 九), 위의 책, 96쪽.

47) “舢板即沿浦灘擺渡小船也, 閩, 潮人業此者多.”「舢板」(『滬游雜記』卷二, 十三), 위의 책, 104쪽.

48) “滬俗裝束競尚京式, 棋盤街, 寶善街新京貨鋪四, 五家, 所售皆內城靴鞋, 雕翎扇, 各式時新繡貨, 掛件耍貨, 無不咸備.”「京貨」(『滬游雜記』卷二, 十七~十八), 위의 책, 113쪽.

49) “西人所開洋貨行以亨達利爲最著, …一切耍貨, 名目甚繁. 至華人所開則以悅生, 金亨爲翹楚, 洋廣各貨俱備. 此外大小各鋪, 南北市亦不下百十家.”「洋廣貨物」(『滬游雜記』卷二, 十八), 위의 책, 114쪽.

50) “粵人以五彩胡蝶暨各色金翠蟲多粘於掛屏, 覆以玻璃, 藉備觀玩.”「百蟲掛屏」(『滬游雜記』卷二, 三十九), 위의 책, 152쪽.

51) “粵人在滬專收舊碎玻璃, 入爐融化, 如法製成各式燈罩器皿, 精瑩奪目, 所不及者, 洋料較細潔耳. 年來貨此者有三, 四家, 零售發客, 門庭如市.”「玻璃器皿」(『滬游雜記』卷二, 三十九), 위의 책, 153쪽.

52) “古玩鋪兵燹後搜甚富, 金陵人業此居多. 市在新北門內大街, 列肆陳設, …品目不一, 價值巨萬.”「古玩」(『滬游雜記』卷二, 三十九), 위의 책, 154쪽.

규범들은 깊게 내재된 내부의 무질서와 무관하지 않았다. 사소한 다툼은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부딪힘에 민감했고, 늘어나는 차와 사람에 의해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위험에 처했다. 주의 깊게 살펴 볼 여유를 주지 않는 “마차”의 속도가 사람들의 마음 속 안정을 상실하게 했고, 불안의 기운이 상하이 대로를 따라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상하이 방문객들은 도시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방법과 사고에 주의해야만 했다.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 오를 때 특히 그러했다.<sup>53)</sup>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성매매가 성업을 이루었다. 한량 游盲은 직업 없이 떠돌며 분란을 일으켰고,<sup>54)</sup> 부랑자들은 무리를 이루어 시골 사람들이나 혼자 여행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악행을 일삼았다. 이러한 풍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차에 걸친 순포국의 징벌”이 필요했다.<sup>55)</sup> 노복을 고용하는데, 현성의 두 배에 달하는 임금이 온갖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브로커를 등장시켰다.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말 뿐이었다. 중요 물품이나 현금은 스스로 잘 보관하는 수밖에 없었다.<sup>56)</sup> 우물이 따로 없었던 상하이에서 물지계를 지고 거리를 활보하던 이들의 난폭함 역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sup>57)</sup> 연습도 없이 끌고 다니는 인력거의 충돌이나 탑승 후 추가 요금을 강탈해가는 경우도 흔했다.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먼저 경찰 서로 끌고 가기만 하는 순포를 생각하면 “그저 승객이 스스로 조심해야할 뿐”이었다.<sup>58)</sup> 상하이에는 소매치기 또한 많았다. 평소에는 大東門 안 큰 거리, 小東門, 新北門 밖 강변 일대 및 희관 입구가 우범지대였다. 사원 참배시기를 맞아 시장이

53) “行李上船擁擠異常，小竊混迹其中，甚有衣履鮮麗，假覓友爲名乘機攫取物件者，沿途各埠，停輪搭客，尤宜防范。”「搭輪船」(『滬游雜記』卷二，四)，위의 책，82쪽.

54) “滬上爲通商總集，五方雜處，凡無業游民遇事生風者，人目爲游盲。”「流氓」(『滬游雜記』卷二，七)，위의 책，90쪽.

55) “滬上無業游民串作鄉民孤客，或乘機局騙，或無債索償，…成羣作惡，屢經巡防局懲治，此風稍戢。”「拆梢黨豆腐黨」(『滬游雜記』卷二，七~八)，위의 책，91쪽.

56) “洋場工錢倍於城中，若輩詐詭百出，銀洋首飾要件，仍當親自收藏，倘遇偷竊逃亡，薦頭置若罔聞，追賠無及，徒費唇舌而已。”「女薦頭」(『滬游雜記』卷二，九)，위의 책，96쪽.

57) “滬上不飲井水，潮至，擔水者絡繹於道，橫衝直撞，稍不避讓，即受欺辱，橫不可言。”「挑水夫」(『滬游雜記』卷二，十)，위의 책，98쪽.

58) “上洋車夫無行無保，推車非素習，且多不識路徑，坐者慎防馬車衝突，小車則易避，東洋車宜留意車價，雖廉必先言明，庶免臨時勒索，每見爭論價值，遇巡捕不論曲直，拉入浦房，惟在坐車者自重耳。”「車夫」(『滬游雜記』卷二，十)，위의 책，99쪽.

열리거나 서양인들의 경마대회가 개최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곳에 나타났다. 잠시라도 소홀하면 몸에 지닌 물건들을 도둑맞기 일쑤다.<sup>59)</sup> 무엇보다 새벽과 늦은 밤 시간, 타지에서 홀로 여행을 온 이들이 작은 배에 타는 일은 결단코 피해야 할 사항이다.<sup>60)</sup>

다양한 오락시설들이 존재한 상하이에서의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쾌락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끊임없이 노출시켰다. “손님들로 만석인 회관과 연예장” 등의 정보만을 바라보는 방문객들이 점점 소비와 욕망의 율타리에 갇히고 말 위험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유잡기』는 직면한 현실의 위험을 모두 공유한다.

北市의 퇴폐한 분위기는 게재하지 않자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 꺼려지고, 상세하게 신자니 또 풍조를 상하게 할까 두렵다. 그러나 상간과 복상의 소리를 공자가 삭제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경계로 삼게 함이었다.<sup>61)</sup>

『호유잡기』는 청루의 스물여섯 가지 규칙을 게재하며 독자 스스로 텍스트의 문자들로 인해 “뜻을 헤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sup>62)</sup> 상하이라는 공간을 채우는 사물과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규범과 장소화 과정을 “꾸밈없이” 서술한 『호유잡기』는<sup>63)</sup> 다양한 도시 현상들을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시선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호유잡기』와 함께 여행하는 상하이 방문객의 기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9) “上海剪絡極多，平日在大東門內大街，小東門，新北門外沿河一帶及戲館門首，每逢香市會期，西人跑馬之日，咸托足其中，稍一疏忽，佩挂等件即被竊去。”「剪絡白撞」(『滬游雜記』卷二，十二)，위의 책，102쪽.

60) “異鄉孤客，清晨深夜斷不可雇坐。”「舳板」(『滬游雜記』卷二，十三)，위의 책，104쪽.

61) “一，北市煙花遍地，淫靡成風，不載則嫌其缺略，詳載又恐傷風化，然桑間，濮上，孔子不刪，未始非示人以勸懲也。”「弁言」，위의 책，8쪽.

62) “茲集揭出青樓俗例二十六則，祈閱者勿以辭害意焉可耳。”「弁言」，위의 책，8쪽.

63) “一，是集原備採風問俗起見，遂條所記皆實情實事毫無虛飾。”「弁言」(『滬游雜記』，弁言，二～三)，위의 책，8쪽.

## 4. 나오는 말

『호유잡기』는 개항 이후 상하이 조계의 행정기구, 기반 설비, 물자, 교통, 생활 풍속, 오락 등을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된 필기 형식의 157가지 세부 항목들은 “구분 없이” 배치되었다. 『호유잡기』는 이질적인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여행객들이 조계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와 나아가 상하이라는 근대 도시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 틀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혹여 모르는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굳이 낯선 이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 『호유잡기』를 지니고 조계를 여행하는 이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던(舊聞)” 상하이가 아닌, 각자의 “취향(嗜好)”에 따라 근대 도시를 형상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규범과 기준을 형성하고 있던 상하이의 일상은 유동적이고 열려진 의미의 장으로 옮겨진다.

### 〈參考文獻〉

- 武林葛元煦理齋, 『滬游雜記』, 上海: 嘯園,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所藏, 光緒2年(21876).
- 武林葛元煦理齋, 藤堂良駿訓點, 『上海繁昌記』(electronic resource), 日本東京, Michigan University 所藏, 明治 戊寅年(1878).
- (清) 葛元煦 撰, 鄭祖安 標點, 『滬游雜記』,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6.
- (日)小濱正子, 葛濤 譯, 『近代上海的公共性與國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費慧林, 『海派廟市』, 上海: 文匯出版社, 2010.
- 마샬 버만 지음,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린다』, 서울: 현대미술사, 1994.
- 이안, 『(혼돈 속의 질서) 上海 근대도시와 건축: 1845~1949』, 서울: 미건사, 2004.
- 문정진·민정기·박소현·백광준·이성현, 『중국 근대의 풍경: 중국 근대의 풍경: 화보와 사진으로 읽는 중국 근대의 기원』, 서울: 그린비, 2008.
- 도시사학회 기획, 이영석·민유기 외 지음, 『도시는 역사다』, 파주: 서해문집, 2011.
- 도시사학회 기획, 주경철·민유기 외 지음, 『도시는 기억이다』, 파주: 서해문집, 2017.

- 오장근, 『도시 인식론: 도시 공간의 서사와 의미구조에 대한 기호학 기반의 간학문적 연구』, 성남: 북코리아, 2018.
- 데이비드 하비, 김병화,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파주: 글항아리, 2019.
- Lu, Hanchao, 『Beyond the neon light: everyday Shanghai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Edited by Hartmut Berghoff, 『The Making of modern tourism: the cultural history of the British experience, 1600-2000』,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N.Y.: Palgrave, 2002.
- Jeffrey N. Wasserstrom, 『Global Shanghai, 1850-2010: a history in fragment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9.
- 洪澤 主編, 『上海研究論叢』 第5輯,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0.
- 夏曉紅, 「返回歷史現場的通道 - 上海旅游指南溯源」, 『讀書』 2003年 第3期, 北京: 三聯書店, 2003.3.
- 문정진, 「중국 근대 상하이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19세기 말 『申報』, 『點石齋畫報』, 『時務報』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제56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1.3.

<Abstract>

A Study on 『Hu You Za Ji(Miscellaneous Notes on Visiting Shanghai)』

Moon, Jeong-Jin

『Hu You Za Ji』 is the first “city guide” book published in Chinese on Shanghai. In terms of visible structural aspects, this book looks like that it can not make it a usable guide to go around the city. However, the narrative of 『Hu You Za Ji』 makes travelers form a covert but systematic perspective on Shanghai as a modern city by Chinese literati. This is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readers to form his or her own selective viewpoint of modern Shanghai. And in 1876, 『Hu You Za Ji』 begins to construct a special image of someone about Shanghai.

After the opening of port, Shanghai was being composed by new cultures and

products that categorizes as engineering technology today. The author Ge Yuanxu(葛元煦) was an insider who had lived in Shanghai for 15 years, and at the same time he was an outsider who had moved from another region, HangZhou. He focused on the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lifestyle and entertainment of the concession, a foreign settlement in Shanghai.

Key words: city guide, modern Shanghai, concession, place, urban identity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11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